23일 지나야 햇빛 볼 수 있다

광주·전남 오늘 20~60㎜ 비 … 24일부터 본격 무더위

광주·전남지역은 23일 장마가 끝나고 24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까지 장맛비가 더 내린 뒤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 장마는 끝나게 된다. 지난달 21일 광주·전남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든 지 꼬박 33일 만이다.

24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29도, 25일은 31도로, 이날 이후에는 30도를 웃도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그러나 "대기가 여전히 불안하고, 제4호 태풍 '빌리스'(BILIS·쾌속)의 영향이 약하게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시점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여서 좁은 지역에 기습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무더위가 시작된 뒤에도 지상의 따뜻한 공기와 상층의 찬 공기가 만나 생기는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한 두 차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까지 광주·전남에 20~60㎜의 비가 더 내린다"고 18일 예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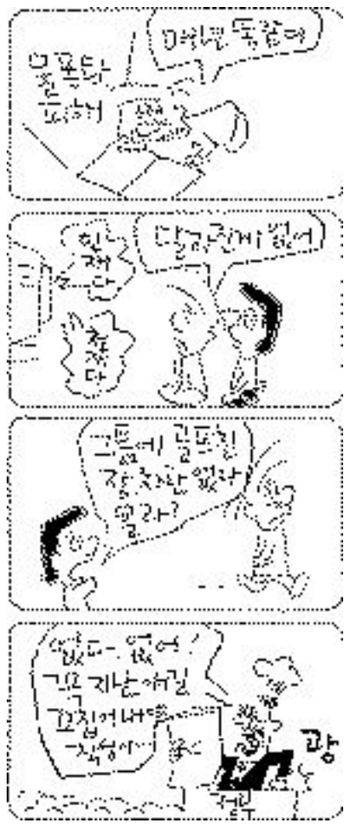
한편, 올해 장마로 남부지방은 6월 21일~7월10일까지 352mm의 강수량을 보여 평년의 223%에 달하는 비가 내렸고 제주도는 526mm로 평년의 187%가 내렸다. 반면 중부지방은 158mm로 평년의 103%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7월 중순부터는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와 제4호 태풍 '빌리스'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고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비를 뿌리게 됐다.

7월11일~7월17일 중부지방 강수량은 372mm로 평년의 486%에 달했다. 남부지방 강수량은 127mm로 평년의 169%였고 제주도는 30mm로 평년의 44%에 그쳤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나원참 〈6883〉 김종두



'코카콜라 독극물' 주입 증거 경찰, 광주 시내버스서 발견

'코카콜라 독극물 주입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서부경찰은 18일 "피의자 박모(여·41)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와 독극물 병 등 증거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시내버스 안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시 광산구 평동 정비창에서 점검을 받던 광주77바XXXX호 버스 왼쪽 뒷좌석 시트와 히터 사이에 검은 비닐봉지가 끼어 있는 것을 정비기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비닐봉지 안에는 독극물 병과 주사기, 테이프, 라이터, 바늘쌈지, 성냥 등이 들어있었으며 특히 500㎖ 용량의 독극물 병은 많은 양이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과 담양군 대치면을 오가는 시내버스에서 박씨를 목격했다는 진술이 잇따르자 이 버스회사 관계자들과 대치면 일대 슈퍼마켓 주인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8일 오후 담양 한 식당과 화순 터미널 인근 슈퍼마켓에 독극물을 주입한 콜라를 가져다 놓은 뒤 9일 광주로 가면서 버스 안에 증거품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증거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성분분석과 지문감식 등을 의뢰했으며, 박씨가 검거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 2대 중 사용내역이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1대에 대한 송·수신 내역을 이날 건네받아 박씨의 행적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진술 거부 등으로 행방이 묘연한 3~6일 동구 대인동 등 광주에 머물렀으며 사채업을 할 당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딸 등과 주로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머물렀던 모텔 관계자나 버스기사 등 목격자 전부가 '박씨가 혼자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공범이 없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극물이 주입된 콜라를 마신 이모(26·광주시 북구 우산동)씨는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등록 전 당 간판걸린 사무실 개소"

오현섭 여수시장 선거법위반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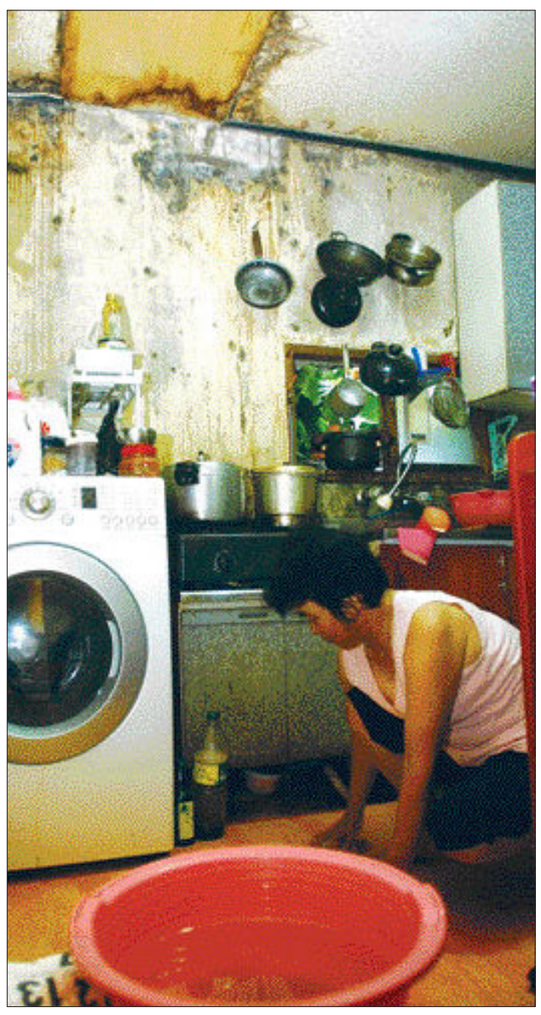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오현섭(56) 여수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유사기관 설치이용 위반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시장은 5·31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 전인 지난해 8월에서 11월 초까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민주당 정당의 명칭과 로고가 포함된 간판을 게시한 사무실을 설치, 당원 모집과 당원 집회 등의 장소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의 1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비만 오면 줄~줄…"정말 지긋지긋 하요"



장마전선이 남하한 18일 정길순씨가 집에 샌 빗물을 걸레로 닦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가난한 이웃들의 힘겨운 장마 나기

천정·벽 빗물 스며들어 바닥은 언제나 '물바다' 집안 곳곳 곰팡이 '악취' "한파보다 수마가 무서워"

허술한 집에 사는 영세민들에게 장마는 가혹했다. 안방과 부엌은 천정과 벽으로 스며든 빗물로 '물바다'가 됐고, 가득 찬 습기는 답답하다 못해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18일 광주시 서구 양3동 정길순(여·57)씨의 16평짜리 단층 집 부엌. 기초생활수급자인 정씨 집에는 아침부터 빗줄기가 쏟아져 벽 틈과 천정을 파고들었다. 바닥은 물에 잠긴 집처럼 흥건히 젖었다. 정씨가 부엌 한가운데 놓아둔 바가지는 끊임없이 쏟아진 누런 빗물로 3분의 1 가까이 찼다. '달달달~' 열심히 돌아가는 선풍기 한 대. 그러나 눅눅한 실내공기를 바꾸기엔 터무니없이 작았다.

정씨의 집은 5년여 전부터 빗물을 '막지' 못했다. 벽지는 스며든 빗물 때문에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여 악취를 내뿜었다. 싱크대 밑바닥은 비만 오면 넘쳐 바닥을 '바다'로 만들었다. 정씨는 장마가 시작된 후 '보송보송' 마른 이불에서 잠을 잔 기억이 없다고 한다.

정씨는 '이런 집'에서 정신지체 3급인 둘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은 지난 2003년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10여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남편은 지난 3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나주 미래병원에 입원 중이다.

두 달 전 광주시 서구 서창동의 한 집(12평)을 100만원에 산 독거노인 김화자(여·66)씨. 그녀는 18일 영암의 오빠 집으로 가기 위해 짐을 쌌다. 태풍 '에위니아'(EWINIAR)에, 장마에 시달리다 못해 잠깐 '피난'을 가는 것이다.

김씨의 '100만원짜리 집'은 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지붕은 무너져내리기 직전이었고, 구멍난 천정은 비만 오면 '줄~줄' 샜다. 천정을 여러 장의 신문지로 덧대 놨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였다.

광주시는 이처럼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집이 8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집은 합판과 비닐 장막으로 얼기설기 겨우 집의 형태를 갖춘 채 힘겹게 서 있다.

집 고칠 돈 없는 사람들의 한 가닥 희망은 광주시의 '사랑의 집수리 사업'. 시는 지난 2003년부터 각 구청 사회복지과의 추천을 받아 보수가 시급한 집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다. 2003~2005년 31가구의 집을 고쳐줬고 올해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 20가구를 보수할 예정이다.

정길순씨는 "지난 1월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사랑의 집수리'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추운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집이 물바다로 변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폐기물 불법소각 업체대표 구속

목포 경찰은 18일 임목 폐기물 1천233t을 불법 소각한 Y업체 대표 윤모(53)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구속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공립 교사 임용 미끼 5,100만원 뜯어

쌍나팔

○…교사 임용을 미끼로 교사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전 교육감 후보 선거 책임자가 쇠고랑.

○…목포 경찰은 18일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

○…김씨는 지난 2002년 11월 2일께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냈던 초등학교 교사 장모(여·48)씨에게 "2001년 전남도육청 모 교육감 후보 선거 책임자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모 사립학교 교사로 있는 남편을 공립 중학교로 전직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1천1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5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